

무거움 빼고 체험·문화 콘텐츠로 접근해야

계엄군 총탄에 숨진 고교생 5·18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법원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



5·18교육, 미래세대의 소통이지

<4>5월에서 벗어나자

올해 ‘청소년문화제’ 첫선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추진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 확대

화운동 교육은 체험 중심의 교육 활성화와 세계화, 연중 상시화 등 세 방향으로 잡았다. 학생이 주인공이 돼 5·18을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매년 5월에 집중된 교육과 행사를 분산해 ‘5월 시즌’에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첫선을 보인 ‘5·18 청소년문화제’는 청소년들이 운영 주체가 돼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5·18 기억하고 가치를 실천하는 공유의 장을 만들었다. 5·18이 민주주의 역사에 끼친 영향과 청소년들의 실천 활동이 담긴 자료를 테마 전시했다. 버스킹을 통해 음악과 춤, 악기 연주 등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공연으로 표현했다.

5·18홍보단인 ‘푸른새’ 단원인 대성여고 김서연 학생(2학년)은 “청소년 문화제 준비하면

서 5·18민주화운동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푸른새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5·18의 가치와 연대와 용서 등 계승해야 할 정신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학생들은 오는 6월 4일 독일과 체코를 방문해 독일의 통일, 유럽의 정치교육,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학생들은 독일 5·18기념사업회와 함께 입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노래극 공연을 하고 홍보물을 함께 배포한다. 오는 8·9월에는 지역 고등학생 20명을 선발해 미국을 방문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수업을 실시하고 5·18 정신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5·18교육의 연중 상시화를 추진한다.

▲5·18 청소년 캠프 ▲가을에 만나는 5·18 ▲오월 굿즈 프로그램은 등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전국 교원 중 500명의 교원을 초청해 5·18 교육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전국 교원 직무연수도 11월까지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새롭게 출범한 5·18 홍보단

푸른새는 영상, 공연예술, 영어 홍보 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자체 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특히 6월 항쟁과 부마항쟁 등 타 지역의 민주주의 역사를 탐방하고 관련 행사에 참가해 5·18을 알릴 계획이다.

또 사이버 5·18기념관 등과 같은 온라인 교육 활동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5·18 문화예술포럼을 확대·운영한다.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오월극 ‘오, 금남식당’과 오월마당극 ‘연젠가 봄날엔’ 작품을 광주지역 7개 학교를 찾아가 공연한다.

5·18 교육자료 꾸러미 3,000명분을 오는 6월 2차 보급한다. 5·18기념재단과 함께 개발한 체험 중심 5·18 교육자료를 전국에 배포해 전국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5·18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민주·인권·평화·나눔·공동체 등의 5월 정신을 기억하고 체험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전국을 넘어 세계로 널리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A씨 등 3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송에는 고교생이거나 갓 스물을 넘긴 나이에 숨진 박근희 양, 전영진 군, 차중성 군, 정운식 씨 가족과 다섯 살배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 조사천씨의 유족도 참여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 금액의 50%~89%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800만원~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부 원고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상징적으로 10만원만 청구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가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며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고,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는 것으로 보인다”며 “40년 이상 배상이 지연돼 물가와 통화 가치도 변했다”고 밝혔다.

박근희 양은 전남여상 3학년이던 1980년 5월 21일 “피가 부족해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차량 방송을 듣고 현혈하러 다녀오다가 참변을 당했다. 그는 버스 창가에 앉아 귀가하던 중 계엄군이 쏜 총탄에 복부와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전영진 군은 대동고 3학년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20일 문제집을 사러 책방에 가다가 계엄군에게 근봉으로 맞았다. 전 군은 다음날 옛 전남도청 앞으로 가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차중성 군은 금호고 3학년이던 1980년 5월 19일 무등경기장 인근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고 항의하다가 근봉과 개머리판으로 폭행당했다. 차군은 광주교도소로 끌려가 45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됐으나 구타·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1983년 3월 5일 생을 마감했다.

정운식 씨는 광주공원 인근 식당에서 일하던 중 5·18이 일어나자 만 20세 나이로 후기 교육을 받고 시민군으로 활동했다. 그는 옛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체포돼 고문당했고 후유증을 앓다가 1982년 2월 28일 세상을 떠났다.

조사천(사망 당시 36세)씨는 계엄군의 시민 폭행에 분노해 시위에 참여했다가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만 5세이던 아들 조천호 씨가 합동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든 모습을 외신 기자가 촬영해 후일 독일 슈피겔지에 실으면서 5·18의 상징이 됐다. /최환준 기자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교복담합 대책 마련 논의 적극심사낙찰제 도입 건의



동구만세 플라마켓 오픈

27일 오후 광주시 동구 푸른길 산수문화마당에서 열린 ‘동구만세 플라마켓’을 찾은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동구만세 플라마켓’은 오는 10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푸른길 산수문화마당에서 운영된다. /김태규 기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담합 대책 마련에 나선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복담합 담당자들이 교복가격 담합행위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해 논의한다. 시교육청은 이날 논의에서 최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교복 담합행위 수법을 공유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복 입찰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탁안건으로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입찰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적인 해석을 토대로 계약해지·입찰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같은 내용을 교복 담당자들에게 안내한다.

현재의 5개월에서 최대 2년의 입찰제한 규정은 적발된 업체가 대표자 명의를 바꾸고 1년에 1차례 진행되는 교복 입찰 특성을 감안해 5년 이상 또는 영구퇴출 등의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학교가 입찰 가능 하한

가(88%)를 고시하면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부터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일정

점수(8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업체로 결정하는 ‘적극심사낙찰제’ 방식도 교복 입찰에 적용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h2>상무지구 상가(매매)</h2> <p>▶ 중심 상업지구</p> <p>(6층, 7층) = 140평</p> <p>시세 → 14억</p> <p>금매 6억8천</p> <p>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p>	<h2>장성토지 매매</h2> <p>▶ 장성호(댐) - 5분</p> <p>광주 - 20분</p> <p>토목공사 완료</p> <p>6m 도로접</p> <p>(100평,150평,200평 가능)</p>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중급반</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산구 연산동 (근린시설) ▶ 감정가 29억 → 최저가 20억</p> <p>북구 신안동 (근린시설) ▶ 감정가 50억 → 최저가 28억</p> <p>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p> <p>광주 동구 불로동 (근린주택) ▶ 감정가 31억 → 최저가 22억</p> <p>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정가 10억 → 최저가 7억5천</p> <p>광산구 수완동 (근린상가) ▶ 감정가 4억 → 최저가 2억2천</p> <p>북구 운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2천</p> <p>나주 빛가람동(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19억</p>
--	---	---